

2013 SS Trend

BLISS (축복/행복)

단지 일상의 움직임과 일반적인 제스처를 체험할 시간을냄으로써 평범함 비평범함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한다. 에너지를 다시 얻고 타인과 나누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의식적으로 감각들에 주목하고 스스로와의 대화에 참여한다. 매일의 웅얼거림은 시냇물의 즐즐거림, 바람의 속삭임, 또는 초원의 서성거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부드럽고 감각적인 움직임

모든 것이 이 움직임의 일부이다. 우리가 결국 개념보다는 과정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존재의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는 길 위에, 우리 삶의 영적 풍경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알 듯 인생의 또 한가지 비전이다.

모든 생물을 연결하는 힘을 인정, 거기서 평범한 제의들은 의미를 띠고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주의 광활함과 하나됨은 그 결과일 수도 있겠다. 단순히 연결되면서 모든 사물과 더불어, 삶뿐 아니라 죽음의 마법을 체험하며, 사물들의 더 큰 틀이 일부를 느끼기 위해, 무한히 작고 약하게 되며, 마치 뭔가 성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듯. 단지 일상적 체험의 평범한 놀라움을 나누며, 영성은 사람과 장소들을 연결하도록 설계되고, 짜여진 인생의 직물의 일부가 된다.

땅의 약한 수호자로, 우리는 우리 식물, 나무, 동물과 서로 이 지구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생태의 깊은 형태를 체험하며, 우리 인간은 또 하나의 멸종 위기 종에 속한다.

우리는 삶의 송배를 체험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전에 아마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던 것은 사실 전에 느껴 본 적이 없었다.

우리 행동 모두를 의식하며 우리는 걷고 말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새로운 공유지를 상으로 줄 것이다. 또 하나의 분명하고 낙관적인 선택권을.

다른 곳에 있는 능력의 목표가 되고, 경험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된다. 우리 내부를 탐색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의 일부가 된다.

-lidewij edelkoort-



○ THE GIFT OF LIGHT (빛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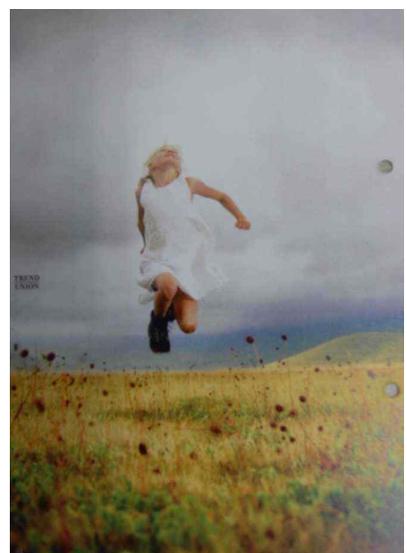
: 화이트 셔츠, 스티칭을 통해 빛과 그림자 생성, 발레리나 스타일, 빛의 반사 yarn, 형태의 디테일이 없으며 심플함, 옅은 페일 칼라에 화이트 가미, 빛이 바랜듯한 컬러, 반투명 얇은 페브릭, 패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세밀한 느낌, 플리츠가 중요한 디테일로 활용

○ THE MEETING OF SPIRITS (영혼들의 만남)

: 셸린느의 영향을 받음, 옷감이 헤비하고 섬세한 테일러링, 종이접기 주름, 셔츠 + 스커트의 매치, 코팅/화이트 워싱 중요, 달걀 껍질컬러, 뉴트럴 베이지톤, 기하패턴, 전체적인 자수 엠브로이더리, 셀느낌의 칼라

○ THE BLISS OF HOME (가정의 행복)

: 칼라의 향연, 린넨 칼라가 아름다워짐, 침구에 대한 관심, 젊은 디자이너들의 심플한 모티브 활용 빈번, 와플느낌의 패턴, 골드/실버 디테일



○ THE SKILLS OF HANDS (손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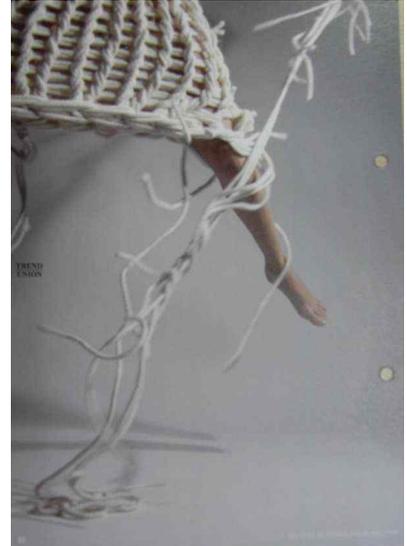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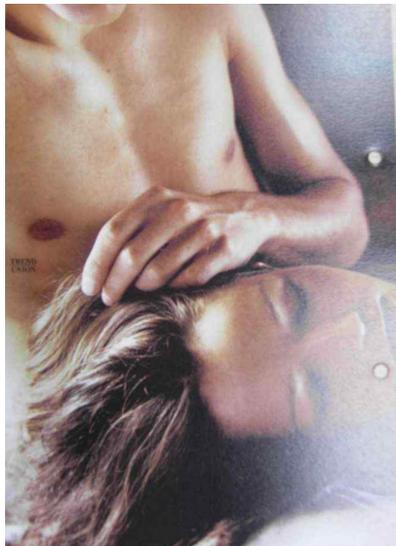
: eat local, 각기 다른 스티치, 오렌지 컬러 강조, 퀴팅,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태도, 20년대의 느낌, 매트, 코튼안, 린넨, 3D 효과

○ THE NURSING OF PLANTS (식물 기르기)

: 후레쉬한 느낌의 화이트 가미, 남성복의 다양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프린트, 꽃잎 연상시키는 칼라, 수작업한 느낌의 패턴, 자수, 핸드 페인트, 코튼, 섬세한 자카드, 워시드된 느낌의 자카드

○ A FEELING OF FREEDOM (자유 의 느낌)

: jumping, 스타일링 없는 것 같은, 후레쉬한 칼라, 무지개 생성, 샴브레이, 와일드한 느낌의 스타일링, 패션에서부터의 자유로움, 새도우, 가벼운 직물과 무거운 직물의 조화



○ THE CAR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배려)

: 사회적인 트렌드, 촉감(촉각) 중요, 크레이프 구성, 스킨톤, 머리카락 칼라, 유아용 페브릭, 파인 저지, 플로럴 프린트, 크레이프, 아세테이트, 실크, 울

○ THE BREAKING OF BREAD (빵 나누기)

: 섬유의 질감 살림, 실크, 린넨, 루프안, 린넨 니트, 컬러 우븐, 농장풍 패션, 크라상 꾸뜨르

○ THE THREAD OF TOGETHERNESS (함께 있음의 가닥)

: heavy yarn, 코튼, 실크, 그레이, 화이트, 여름 모헤어, 레이스와 혼용, 니팅, 스티치의 믹스, 다른 게이지 스티치의 혼용



○ THE ORDER OF THINGS (사물의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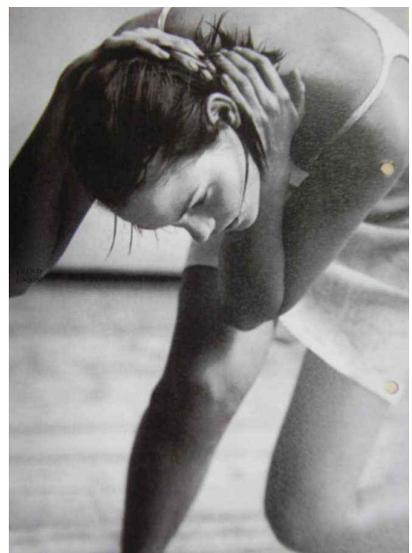
: 기록물 정리, 엄격하고 반듯한 느낌, 박스타입, 지퍼 활용, 크레프트 자체의 칼라, 작업복, 기하학적인 모티프, 구조화된 패턴, 속옷 란제리, 손수건의 페브릭화

○ THE LONGING FOR REPETITION (반복추구)

: 멀티컬러 활용, 패치워크, 저지, contemporary 느낌

○ THE TALENT OF CREATION (창조의 재능)

: 아트가 패턴에 끼치는 영향, 리사이클링, 팬시도트, 칼라블럭, 헤비 레이스, 칼라 블록킹, 구성주의적 패턴, 밝은 패치, 모노크롬



○ A SKETCH OF CHARACTERS (인물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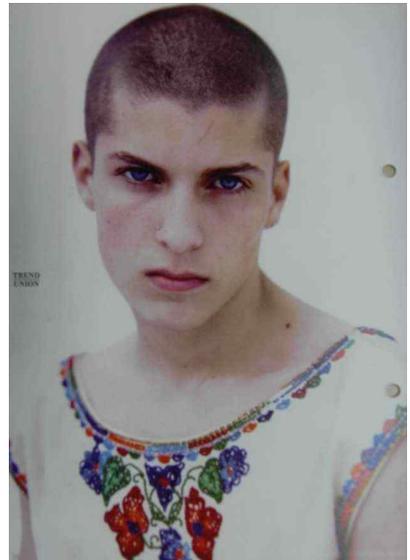
: 수채화적인 컬러, 유머러스, 아름답고 세련됨, 자수, 핑키, 엠브로이더리 + 스케치

○ THE SCIENCE OF LIGHTNESS (가벼움의 과학)

: 초경량화, 퓨처리스틱, 워시된 형광느낌, 그래픽한 어필, 건축학적인 패션, 나일론 금속디테일 이용, 레이저 프린팅

○ THE MOVEMENT OF BODIES (신체의 움직임)

: 심플한 의상, 거의 속옷 같은 느낌, 플랫한 슈즈, 미세한 패턴으로 눈에 보이지 않음, 데님의 포플린, 댄싱슈즈, 팬싱컬러, 약간의 모티브



○ THE ESCAPE OF FASHION (패션의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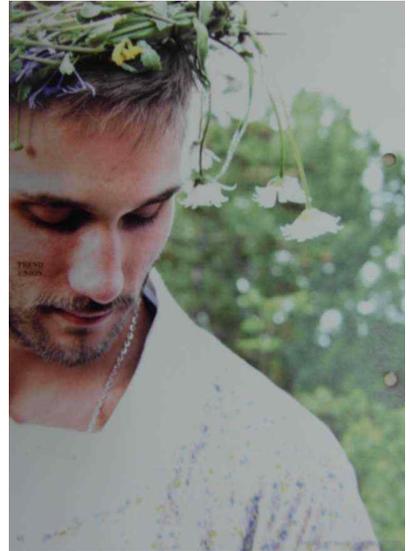
: 지적인 컨셉, 우리가 아는 스타일 거부, 빛바랜 느낌, 튜닉 드레싱, 우리안에 존재하는 여신, 인도, 러스틱, 시골풍, 미완의 느낌, 약간의 디테일, 레더의 링클된 느낌, 너덜거림

○ THE BEAUTY OF THE UNDONE (이뤄지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

: 일본 문화의 향수, 미완성의 미학, 기모노패턴, 전혀 새로운 해석, 아방가르드, 아시아적인 칼라 + 화이트, 새도우, 플라워, 스트라이프, 패치워크, 크레이프, 봄에 꽃이 만개한 느낌, 전통의 재해석

○ THE SAMPLING OF CULTURES (문화표본수집)

: 옛날 이야기, 민화, 민속의상 컬러, 후레쉬한 화이트, 루마니아, 멕시코, 이카트 모티브, 멀티칼라, 스카프 대세, bird 패턴



○ THE SPIRITS OF EARTH (땅의 영혼)

: 자카드를 이용한 무브 페브릭, 나무, 패딩, 블러드 패턴

○ THE FOOLISHNESS OF FASHION (패션의 어리석음)

: 낭만적인 느낌, 약간의 레드 가미, 셀컬러 환타지, 블랙&화이트, 플리츠, 그래픽 컬러 코드

○ THE CELEBRATION OF LIFE (인생의 축하)

: 물과 공기, 계절과 연령, 세레, 결혼, 폐일한 느낌, 레이어링, 3D, 아름다운 화이트, 아바, 히피, 아이들을 위한, 성숙한 느낌, 프린트 같은 레이스, 자수

출처: Trend Union

